



함께 예수님께 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로데 왕에게 물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어요.



헤로데는 이 새로운 “왕”에 대해 듣자 불안해 하면서, 박사들이 그를 찾게 되면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오라고 해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속셈이지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도착하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는 먼 길을 다시 떠나는데, 그날 밤 꿈에서 들었던 대로, 헤로데에게는 가지 않아요.



브라질의 바오로 경험담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은 같이 놀 때, 서로를 다치게 하고 싸우면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와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서도요.



지금은 놀다가 누군가 다치는 일이 있어도 고통을 많이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놀아요.